



안녕하세요.

2022년 1월 세 번째 토요일의 글을 보내드립니다.

언제나, 제 글을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벤트

1월의 글 중 마음에 드는 구절을 골라서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plantstar_n.612'를 태그해 업로드해주시면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편 구독

우편 구독을 희망하셨던 분들 대상으로 글을 보내드리려 합니다. 일반 통상 우편으로 보낼 예정이며, 무게 제한이 있어 나누어 보낼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글에 어울리는 음악



♪ Lana Del Rey - Love

2017. 02. 18.

'Lust for Life'의 리드 싱글.

이때까지의 라나 델 레이의 음악에서는 쓸쓸함과 허무함이 주된 테마였는데, Love에서의 라나 델레이는 달콤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한다. 할리우드 새드코어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따스하고 포근하게, 라나 본인의 색깔은 잃지 않은 채로. 아련하면서도 부드러운 사운드.

1월 세 번째 토요일 - 편지 우주선을 타고, 구텐베르크 은하계로

- 2022. 01. 15. 엄규식

누군가 내게 2021년에 뭘 했느냐고 묻는다면, 참 할 말이 없다. 뭐 하나 진득하게 한 게 없는 것 같아서. 프랑스어는 접은 지 오래고, 전공책은 잠 안 올 때만 들여다본다. 다른 동기는 벌써 일회독을 끝냈다는데, 난 보기만 하면 10분 안에 금방 잠든다. 책은 시간 나고 내킬 때만 읽는 데다가(난 전자 제국의 시민이지, 문자 제국의 고위 관료가 아니므로) 운동도 안 한다. 요즘은 침대에서 꿈쩍도 하지 않는다. 예전엔 이리저리 뽳뽳거리며 돌아다녔는데. 사실은 귀찮으면서, 날씨 춥다는 핑계로 걷지도 않고. 내가 입대한 후로 그나마 꾸준히 해 온 일이 있다면 블로그 포스팅, 식물 키우기, 편지 쓰기 정도일 것이다.

생각해 보니까, 편지 쓰는 건 참 질리지 않고 오래 하고 있는 듯하다. 훈련소 때부터 줄곧 해오고 있으니, 거의 1년 가까이 해온 셈이다. 연락할 수단이 변변치 않던 훈련소 때야 그렇다 치고 서라도, 마음 내키면 바로 통화할 수 있는 지금도, 나는 계속 이곳저곳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다.

“얼마나 쓰는 거야?”

하루에 두 장 정도 쓰는 것 같다. 일주일이면 15장 정도. 적은 편은 아니다. 이곳으로 전입 온 후로도 쭉 쓰고 있으니, 적어도 이백 장 정도는 족히 넘었으리라 생각한다.

“가장 많이 보냈을 때는, 몇 개 보냈어?”

한번은, 크리스마스 이브 때 총 45개를 보낸 적이 있다.

“왜 그렇게 모아둔 거야?”

특별한 날에 보내려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쌓여서 그랬다. 그날은 내가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너끈히 다 보낼 수 있는 시간적으로 충분히 여유로웠다. 또 우체국은 공휴일에는 하지 않으니, 크리스마스 빼고 주말 빼면, 편지가 해를 넘겨서 도착할 것 같아서 ‘이번엔 꼭 해야지’ 하고 다짐한 것도 있다.

“칼 같은 우체국 마감”

이곳 우체국은 12시 반까지 하기 때문에, 그날따라 줄이 길거나 해서, 시간을 넘겨버리면 아예 못 보낸다. 알짬없이 땡, 하면 더 이상 우편을 받지 않는다. 근무 스케줄에 맞춰야 해서, 내 차례를 기다리다가 결국 못 보내고 자리를 뜬 적도 많았다. 그렇게 몇 주 보내버리고 나면, 미처 못 보낸 편지가 몇십 통 넘어가는 것도 특별한 일은 아니다.

“우편 시스템”

우편 처리 하는 데에도 시간이 꽤나 걸린다. 이 봉투는 규격이고, 이 봉투는 비규격이고. 그래서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50g이 기준이라서 무겁다고 생각되는 건 무게도 일일이 달아봐야 한다. 어떤 때는 선납라벨 붙이는 것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린다. 하나하나 일일이 붙이고 도장까지 찍어야 하니까. 난 죄다 우편만 보내는 데도, 택배 보내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린다. 나 한 사람 처리하는 데만, 택배 몇 개는 족히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이 걸릴 때도 있다. 뒷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해서 한때는 미리 선납일반통상라벨만 이삼십 개 뽑아서, 미리 다 붙인 적도 있다.

휴가 다녀오고 나니까, 일반 우편 요금이 470원에서 520원으로 인상됐다는 거다. 그래서 기존에 붙인 선납라벨에다가 50원 선납요금라벨을 덧대어서 붙여야 했다. 그렇다 보니 일은 훨씬 복잡해졌다. 어떤 건 규격이고, 어떤 건 비규격이고, 규격 봉투에 들어 있는데 두께 초과로 비규격으로 분류해야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520원짜리 새 선납라벨이 붙어 있고, 어디에는 예전 470원짜리 선납라벨이 붙어 있고, 어떤 건 아예 선납라벨이 안 붙어 있고. 전부 하나하나 다 달랐다. 등기도 없고, 준등기도 없이 죄다 일반 우편이라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종류가 이것저것 많아서 머릿속이 무척이나 복잡했다. 다행히 국장님께서 일을 잘 처리해주셔서, 아무 문제 없이 편지들을 보낼 수 있었다.

“누구한테 그렇게 써?”

정말 온갖 사람들에게 다 쓴다. 딱히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물론 일 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쓰는 사람도 있고, 매주 쓰는 사람도 있지만. 웬만하면 쓸 수 있는 만큼 쓰는 편이다.

“등기”

나는 전부 일반 우편으로 보낸다. 그래서, 우체국 바구니 안에는 내가 보낸 일반 통상 우편물들만 한가득이다. 군대에서 준등기는 한 번도 보낸 적 없고, 등기는 딱 한 번 보낸 적 있다. 한창 특기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던 후배에게 쓴 편지였다. 그때 얼마나 사람의 연락이 그립고 필요한지 겪어봐서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욕심을 냈던 것 같다. 이것도 적고 저것도 적고 좋은 글도 고르고, 이것저것 꾸미니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더 늦게 보내게 되었다. 일반 우편으로 언제 받을지 생각해 보니, 수료 전날에 도착하겠구나 싶었다. 많이 정성을 담았던 편지인지라, 혹시 제대로 안 가면 어쩌나, 못 받으면 어쩌나 걱정이 됐다. 주소도 두어 번 확인하고 우편번호도 확인하고 그랬는데도 마음이 안 놓였다. 그래서 결국 등기 우편으로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야 내 마음이 놓일 것 같았다. 군대에서의 첫 등기가 내 인생에서의 첫 등기는 아니었다. 전에 공부방 할 때, 복지재단(그 기관은 왠지 메일로 안 받고, 무조건 등기만을 고집했다.)에 등기로 서류 보낼 일이 있었는데, 그 후로는 한 번도 등기우편을 써 본 적이 없다.

내 번호를 적어두고 등기로 보내기로 하고서도, '혹시' 하는 생각이 들어 익일특급으로까지 해줬다. 그랬는데도 마음속에 일말의 걱정이 남아 있었다. 나중에 등기번호로 조회해보니, 다행히 그 우편물은 잘 도착했다고 한다. 그때 그 편지를 등기 우편을 통해 보낸 건, 내가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한참 마음 졸이다가 편지가 무사히 도착한 걸 확인했을 때의 안도감은, 지금 생각해도 짜릿했으니까.

“쓸 내용이 그렇게 많아?”

특별한 일이 매일 벌어지지 않는다는. 요즘 뭐 하면서 지내는지, 내 기분은 좀 어떤지, 사람들과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주로 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내가 관심 가지는 것들, 흥미롭게 지켜보는 것들, 이런저런 세상일 중에서 내가 알게 된 것들. 거창한 건 없고, 그런 사소한 것들을 미주알고주알 늘어놓는다. 나에게는 너무 익숙하고, 시시하고, 똥아빠진 것처럼 느껴진 일상이라도, 누군가에게는 그런 것들이 신선한 이야기가 될 수 있나 보다. 나에겐 별것 아닌 일을, 다른 사람은 신기해하고 관심 있어 할 수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모두는 타인이 가지는 세계에 무관심한 만큼, 그만한 크기의 관심을 주는지도 모르겠다.

“일상을 얘기한다는 것”

내 일상을 구성하는 아주 작디작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본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실감하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자각하게 된다. 그러고 나면, 그 상황에 처했을 때와는 또다른 방식으로 그 일을 보게 되기도 한다. 마치 내 자신을 다른 사람 보듯. (물론 스스로를 완전히 타자화할 수 있는 시선을 갖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그런 시선으로 보면 조금은 내 주변의 일들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건, 그때의 나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내가 그 일을 왜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라든가, 대처하는 방식을 조금씩 알아갈 것도 같다.

KBS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3일> '서민들의 인생 분기점 - 구로역' 편에서, 한 시민이 인터뷰 요청을 받은 후에 이런 말을 한다.

“기차를 타고 뒤를 돌아보면 굽이 굽이져 있는데, 타고 갈 때는 직진이라고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저도 반듯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면 굽이져있고 그게 인생인 거 같죠.”

뒤를 돌아본다는 건, 내가 직진이라고 생각했던 길이 사실은 굽어 있다는 걸 알아볼 수 있는 계기인 동시에, '나는 왜 굽어진 길을 직진이라고 생각했을까, 그때 내 심정은 어땠을까' 하고 그때의 나를, 앞으로 걸음을 옮기는 나의 마음속 풍경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렇게 내가 쓰는 편지는 나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고 지난날을 뒤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점에서 일기 같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일기의 성격과는 조금 다르다. 일기가 나 자신에 대한, 나만을 위한 기록이라면, 편지는 이 글을 읽을 독자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쓰는데도, 누구에게 쓰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이 달라진다. 같은 금성을 얘기할 때도, '샬렐'과 '개밥바라기'가 주는 의미가 다른 것처럼. 가령, 여행 얘기를 쓸 때에도 누군가에게 본 걸 위주로 얘기하고, 나랑 취향이 겹치는 친구에게는 오늘은 또 뭘 먹었는지 알려주고, 내 생각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에게는 내가 뭘 느꼈는지 써준다.

국어교육과 친구들에게 쓸 때는 긴장을 바짝 하기도 하고, 반대로 느슨하게 푸는 경우도 있다. '문장 수사의 이해'를 생각하면, 이게 글인가 싶고, 쉽사리 펜이 잘 나서지 않는다. 그렇지만, 오히려 나랑 생각하는 고민거리가 겹치고 생각도 비슷한 친구들이 많아서, 그 친구들이라면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읽어주겠노라, 하고선 마음껏 내 생각을 써내려가기도 한다.

"편지 공방"

나에게는 사소한 데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강박증 비슷한 성향이 있다. (INFP 공통일까?) 편지에도 이게 적용될까 싶었는데, 나름대로 이런저런 옵션을 집어넣으면서, 편지 이곳저곳을 업그레이드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시작했던 건, 좋은 글들을 옮겨적는 거였다. 특기학교 때도 최은영 작가 단편집 『내게 무해한 사람』을 빌려서, 단편 「손길」 구절을 적었던 생각이 난다. 자대 오고 나서는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의 구절을 적었는데, 아직도 저 두 책의 구절들은 종종 편지에 넣어서 보내고 있다. 그러다가 편지 쓰는 사람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손글씨로는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고, 결국 이런저런 좋은 글을 따서는 프린트해서 보내기 시작했다. A4 용지를 딱 두 번 접어서 4등분하면 높이는 적당한데, 가로로 조금 빠져나온다. 그래서 접은 종이 양옆을 가위로 조금씩 잘라내야, 편지 봉투에 들어가기에 딱 맞는 사이즈가 된다.

글 선정하는 것도 수고롭지만 무척 재미있다. 처음에는 내가 알던 시 몇 편을 뽑았고, 도서관에서 빌린 책 중에서 괜찮은 구절을 찾는 등 '글귀 채집'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 드라마 대사도 몇 개 가져오고, 논문에서도 글을 뽑고, 하는 식으로 요즘은 점차 그 외연을 확대해가고 있다. 그렇게 잔뜩 뽑고 나서는, 이 글은 누구에게 줄까, 저 글은 누구에게 줄까, 하면서 즐거운 고민을 하기도 한다. 누가 읽으면 좋겠다, 하고 시작한 사소한 고민이 몇십 명에게 동시에 편지를 보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꽤나 머리를 쓰게끔 하는 일이 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런 종류의 고민은, 받고 열심히 읽어줄 사람을 생각하면 여전히 무척 즐겁기에 앞으로도 대환영이다.

봄이나 여름에는 꽃들을 편지지에 붙이기도 했다. 벚꽃잎은 쉽게 무르기 때문에, 예쁘긴 했지만 자주 보내진 않았다. 활주로 초지에 난 꽃들을 썼었던 것 같은데, 토끼풀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가을이 되고 나서는, 떨어진 노란 단풍잎들을 보냈었는데, 그때는 내가 너무 바빠서 자주 줍지 못했었다.

휴가 다녀오고 나서는 섬유탈취제나 순전히 향 때문에 산 바디 미스트를 편지지에 뿌리기 시작했다. 한 친구가 편지지에 북퍼품을 뿌려줬던 게 계기가 됐다. 그 향이 그때까지 남아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고, 시각과 촉각 외에 편지가 후각적 자극까지 줄 수 있구나, 싶어 편지지에 뿌리기 시작했다. 편지지 앞면에 뿌리는 바람에 펜 잉크가 번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계속하고 있다. 이번 휴가 때는 무화과 향이랑, October Woody를 사봤다. 이쪽 방면으로는 통아는 게 없어서, 어떤 향이 무난하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다. 크리스마스 이브 때 편지 보낼 적에는, 어느 향이 좋냐고 물어보고서는 내 나름의 편지 커스터마이징까지 시작했다.

이런저런 간식을 넣어주기도 한다. 레모나S나 결콜라겐처럼, 날개 형태로 포장된 것들이 보내기에 편하다. 사실 간식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적은 양이지만, 칼 같은 50g 규격 제한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 그래도 편지지에 붙여두면 나름 근사하다. 이제는 내가 후각을 넘어 미각까지 도전하는구나, 싶어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약간의 뿌듯함까지 느낄 정도였는데, 지금도 그런 나의 모습이 부끄럽기보다는 기특하게 느껴지곤 한다. 얼마 전에는 강릉에서 근무하는 동기로 부터 껌이 든 편지를 받았는데, 그것도 나름 괜찮겠다 싶어서 다음에 시도해보기로 마음먹었다.

편의점에서 양초를 사서는 실링 왁스 느낌으로 꾸며 봐야겠다, 싶었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고 너무 번거로워서 그냥 하지 말기로 했다. 마침 동기로부터 마스킹 테이프 쓴 봉투를 받았는데, 실링 왁스를 쓴 것보다 더 깔끔하고 예뻐다. 무엇보다 훨씬 간편했다. 그래서 세 번째 휴가 때 마스킹 테이프를 이것저것 사서 잘 쓰고 있다.

또 어디에 어떤 변화를 줄까, 생각하다가 이번엔 편지 봉투를 꾸며보지, 하고서는 작업을 시작했다. 사실 전에도 편지지 뒷면이 맛있게 느껴져서 그림을 그리곤 했었는데, 요즘엔 아주 판을 벌려서 초등학교 때 했던 콜라주 기법을 쓰고 있다. 컬러 프린터가 안 되기 상황에서 휴가 때 사 온 스티커도 다 떨어졌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이것저것 오리고 있다. 전에 쓰던 플래너에 스티커도 많고 그림도 많아서 아주 요긴했다. 그 외에도 작년 달력, 영자 신문 동아리 하고 남은 신문, 심지어는 식품 포장지까지 그림이라면 모두 가리지 않고 집어넣었다. 이곳저곳에서 재료들을 구해오니깐 전부 다 다른 느낌을 주었는데, 그런 제각각의 특성이 콜라주에서는 오히려 묘한 감성을 부여했다. 신문지와 골판지와 포장 비닐은 질감부터 다르니까. 그런 이질성의 조합이 딱 hip하게 느껴졌다.

이렇게 꾸미는 모든 과정이 그 사람을 위한 맞춤 제작이라고 생각하면 마구 흥이 나기 시작한다. 편지는 그 자체로도 오투퀴르지만 생각지도 못한 요소까지 그 사람을 위해 만들었다 생각하면 짜릿하다. '편지 공장'처럼 절차가 복잡하지만, 모든 걸 표준화하고 획일화해서 대량생산하는 공장의 느낌과는 다르게, 한 사람 한 사람 맞춰서 다르게끔 해야 하는 점에서 '공방'이 좀 더 어울리지 않나 생각한다.

물론 부작용도 있다. 우선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 받을 사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생각하면, 단순히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편지를 꾸미기에는 성에 차지 않았다. 더군다나, 모두에게 똑같은 편지를 준다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다 보니, 편지는 다 써두고 이것저것 꾸미느라 계속 시간이 지체되고, 10월에 쓴 편지를 12월에 보내기도 하는 일도 빈번해졌다. 그래서 내 편지 봉투는 빼꼼 입을 벌리고 있는 것들이 많다. 아직 들어설 게 남았거나, 향을 뿌리지 않았거나, 편지 봉투를 꾸미지 않았거나, 다 완료되지 않은 것들이다.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 머릿속이 복잡해질 때도 있다. 차라리 꾸미는 데에 쏟을 정성과 창의성을 글 자체에 투자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다. 아니면 마스킹 테이프처럼 좀더 간편하면서도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찾아봐야겠다.

왜 그렇게 편지를 쓰는 거야?

편지 쓰는 걸 볼 때마다 한결같이 이 질문은 꼭 하곤 한다. 마음대로 연락하기 어려운 훈련소나 특기 학교 때라면 모를까, 난 얼마든지 전화로 연락할 수 있는 지금도 편지를 쓴다. 오래 걸리는 편지를 여전히 고수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우선, 편지를 쓰면서 앞에서 얘기한 대로 고요한 마음가짐으로 내 일상을 차분히 돌아볼 수 있다. 편지를 쓰는 동안에는 내 생각에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것 같다. 그건 키보드를 두드리는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다. 편지 삼매경에 빠지게 되는 건, 작은 여행을 떠나는 것과도 같다.

또 편지는 여러 자극을 준다. 통화는 즉각적이지만, 오로지 청각적 신호에만 의존한다. 채팅은 더 더욱 그러하다. 오직 언어 그 자체만 던져준다. 통화는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에서 여러 반언어적 요소를 담을 수 있지만, 문자로 이뤄지는 채팅은 그마저도 할 수 없다. 아마 그런 이유에서 이모티콘이 나온 게 아닐까 싶다.

편지는 많은 것을 담는다. 손글씨는 의외로 많은 것을 느끼게 한다. 일률적인 채팅 속 문자와 다르게, 어떤 글씨는 크고 어떤 글씨는 작고, 또 어떤 글씨는 뽀뽀뽀뽀하기도 하다. 문단도 나누어지고 화이트가 그어진 부분을 보고서는, 이 부분은 수정했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리고 내 편지는 후각적 신호도 주고, 미각적 신호도 준다. 그래서 편지 받는 사람에게 단순히 소통의 매개체뿐만 아니라 하나의 선물을 받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편지는 물성(物性)이 있다. 직접 만져지는 촉감과 앞서 말한 여러 차원의 자극은 아직 까지 디지털 세계가 제대로 따라잡지 못한 영역 중 하나이다. 나는 물성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할 자신은 없지만, 그것만이 줄 수 있는 느낌이 쉽게 대체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현대 과학이 이룩한 눈부신 성과를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물성에 집착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 믿음은 쉽사리 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채팅은 전자 시대의 산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채팅이라 한들, 결국에는 문자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문자제국에 속하지 않겠냐 할지도 모르지만 그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채팅은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채팅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구태여 '글을 쓴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의미의 '글쓰기'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바쁘게 쓰는 글은 정보의 전달에 그칠 뿐, 내면 세계로의 여행은 되지 못한다. 극히 표피적인, 그래서 '작문'과 '독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민망한 수준의 작문과 독해일 뿐이다.

그래서 어떤 친구와 채팅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라 하면, 편지를 쓰는 것만큼의 깊이를 가지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내 편지 역시 가벼운 내용이 많고, 내면의 고찰을 거치지 않은 것도 무척 많지만, 적어도 채팅보다는 편지에서는 내 자신과 좀 더 오래,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다. 통신 수단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신속함은 양날의 검이다.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원하는 주제로 즉시 얘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바로바로 반응을 확인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런 신속함은 때로는 사고를 표면에 머무르게끔 한다. 그 사람의 말을 듣느라, 그 말에 반응하느라 정작 할 말을 잊어버린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때로는 저 밑으로 생각을 침전하게끔 해야 할 때가 있다. 그러면 생각을 담는 틀인 언어도 대장장이가 버린 것처럼 정확해지고 섬세해진다.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 통화나 채팅이 정신적으로 너무 지치기 시작했다. 내 마음이 요즘 왜 이러는지는 잘 모르겠다. 아마 직접 얼굴 마주하고 만나기 힘들어지면서, 모두가 '랜선 친구'인 것처럼 느껴진 까닭도 있으리라. 그건 코로나 시대 때 내가 가장 힘들었던 점이다. 그렇지만 편지를 쓰는 동안만큼은,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게 조금 달라진다. 왜 그럴까.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다. 아마 내가 편지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통화나 채팅을 하는 빈도가 줄었으니까.

혹은,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아서 그랬는지도 모른다. 편지를 쓸 때만큼은 관념화되고 이상화된, "내게 무해한 사람"¹⁾처럼 느껴지던 상대방이, 실제로는 때로는 무심하게 나를 상처 입히기도 하고, 나를 낙담하게끔 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마음에 꾀꾀 숨었는지도 모른다. 따뜻하고 애정 어린 말만 하고 싶어서, 그 사람에게 의지하듯이, 사랑을 갈구하듯이 그랬을

1) 최은영, 「손길」, 『내게 무해한 사람』, 문학동네, 2019, 238쪽.

지도. 나는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쓸 때, 그 사람의 가장 따뜻한 면을 보고서 편지를 써 왔을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그건 따뜻하고 자애로운 시선이 아니라, 상대의 좋은 면만 보고 싶고 어리광만 피우고 싶은 어린애 같은 애정결핍일 것이다. 상대방의 반응을 바로 전하는 전화나 채팅은, 내가 지니고 있던 환상을 단칼에 깨버리니까.

마지막 이유는, 왜 내가 그토록 통화와 채팅 대신 편지로만 소통하고 싶은지는, 나도 정확히 모르는 차원의 것이다. 그런지 전반적인 글도 엉망이다. 나 스스로도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아볼 수가 없다. 우리 과 교수님은 모르는 건 쓰지 말라고 하셨다. 그렇지만, 평생 모르는 것만 쓰지 않고서는 나의 세계는 점차 작아져만 갈 것이다.

편지 우주선

편지는 우주선처럼 나를 다른 곳으로 실어나른다. 편지 우주선은 선납라벨을 붙일 때가 되어야 발사되는 것이 아니라, 빈 편지지를 꺼내 들었을 때부터 이륙하기 시작한다. 나는 빈 편지지를 채워나가고, 내 기억에서 일상의 소소한 것들을 끄집어내 그것들을 활자화한다. 그동안 편지 우주선은 구텐베르크 은하계로 궤도를 맞추어나간다. 편지를 쓰면서 나는 익숙하면서 생경한 세계로 나아간다. 그것은 늘 나와 함께하지만, 고요함 속에서 정신을 집중하고, 시선을 바로 해야 비로소 보이는 세계이다. 내가 전역할 때까지는, 종종 편지 우주선에 내 몸을 맡길 듯하다.

작가 노트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봐야 할 듯하다. 그건 매우 복잡한 일이 될 테다. 마음이 내키는 이유를 찾기란 어려운 일이니까. 사실 난 누군가에게 어리고 미성숙한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게 두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다. 그래서 내 나름의 분석을 쓰면서도 전부 ‘지도 모른다’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듯 쓴 것 같다.

나 자신을 내보이는 일은, 내심 바라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감추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타인으로 하여금 나의 가장 빛나고 부끄럼 없는 부분만 낚아채서 기억해주기를 은근히 원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휴가 다녀온 후에 격리를 하는 동안,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다. 글도 조금 읽었다. 글로 옮기지 않고 생각만 하다 보니, 명확하고 깔끔하게 뚝 떨어지지는 않았다. 평소에 하던 생각들이 엉기성기 얹히고설키며 꼬리에 꼬리를 물 듯이 이어졌다. 그래서 이번 글은 크게 보면 편지에 관한 나의 경험을 다룬 것이지만 자세히 보면 문자제국의 쇠망, 나 자신의 게으름과 부지런함, 소소한 일상, 물성, 전자 제국에서의 소통 ... 이렇게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들이 줄줄이 달려 있다. 조만간 저 생각들은 독립된 글로서 다시 한번 나올 듯하다.